

이강수 고창군수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강인형 순창군수

“복분자산업 집중 육성”

“세계 장류산업 메카로”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고창 건설’을 새해 군정방향으로 설정했다.

이군수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토대를 닦고 고부가가치 농업과 특색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어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또 고창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는 해다.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고창농산물유통센터 공동마케팅조직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또 황토배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 선정으로 시설현대화 등 22억원을 지원 받는 성과도 올렸다.

경제효과 1,100억원

올해는 특히 ‘복분자 등 지역특화산업 집중 육성’과 인프라 구축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건설’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복분자 전 시판매장건립과 생산이력제 장려금 지원, 포장제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신활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군수는 이같은 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경우 복분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천100억원대에 이르고 2010년에는 3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30여만 평의 청보리밭 축제도 개최된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장육축축 등 재래시장 가꾸기 사업 및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흥농농공단지 조성은 올해 이군수가 관심을 쏟는 분야다.

재생 에너지 사업은 고창군의 밝은 미래를 앞당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특히 1천억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가 오는 5월 개항면 치릉리 일원에 착공된다. 심원 마을과 해리 광송, 상하 장호일 원에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주민소득증대를 높이고 이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미래지역관광산업으로 연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군수는 고창 농촌개발대학 운영 등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식농업, 벤처농업 등

고창읍성 경관조명 설치

고창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유적이 산재해 있다. 고창의 대표 관광명소인 고창읍성에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선운사, 고인돌공원과 연계해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비롯해 노인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고창군보건소를 비롯 보건지소, 진료소 등 6개소에 첨단의료장비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이군수는 “문화, 관광, 경제는 물론 교육, 보건,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선진 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창, 세계속의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팔고루 잘사는 고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토대를 닦겠다는 것이 강인형 순창군수의 정해년 새해 각오다.

이를 위해 지난 민선 3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 500여 산하공무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나 세계속의 장류메카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복안이다.

순창은 전국 제 1의 장수고을로 명성이 높다. 장수연구센터 건립사업 역시 강군수의 역점사업이다. 강군수는 ‘장수’야말로 순창을 살릴 수 있는 키워드로 판단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대폭 지원

지난해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지급하던 장수수당을 올해부터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와 의료 문화 복지시설을 고루 갖춘 종합복지형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건장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친 환경 농업 육성에도 강군수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웰빙 농산물’을 생산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군수는 강천산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로 집중 개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게 될 순창장류축제를 더욱 내실있고 짜임새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발효미생물센터 건설

강군수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굵직한 신규 국책사업들을 대거 유치시키는 강한 추진력을 과시해 왔다.

올해도 특유의 리더십으로 성장동력 산업인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설과 장수연구센터 설립, 가인 김병로 선생 기념사업, 발 기반 정비사업 등 신규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순창하면 단연 고추장이 떠오를 만큼 순창군의 장류산업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장류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순창 장류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장류 가공식품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구축, 마케팅 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장류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이용 협약을 확대 체결하게 된다.

장수 프로젝트 구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장류 체험단을 적극 유치하고, 장류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접할 수 있는 장류 박물관 본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오는 2009까지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를 차질없이 건립해 국제 품질기준에 맞는 전통장



신명나는 ‘고창농악’

수도권 대학생 30여명 유도농악 전수 구슬땀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고창농악을 배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

이달 중순부터 고창군 성송면 고창농악 전수관에는 연세대·이화여대 등 수도권 대학생 30여명이 호남우도국을 대표하는 고창농악을 배우고 있다.

이들은 고창농악보존회 소속 강사들로부터 판굿가락과 고깔소고춤, 복놀이, 설장구 등을 전수받고 있다.

보존회는 전북 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된 고창농악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00년 전수관을 설립, 한해 평균 600명의 전수생을 배출하고 있다.

고창농악은 전라도의 서쪽 평야 지대에서 이어져 온 호남 우도 농악 중 하나로 풍장구, 매패, 판굿 등으로 구성돼 전반적으로 여성적이고 우아한 가락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훈 전수관장은 “고창 농악은 수백년 동안 민초들의 삶을 이어온 우리 고유의 가락과 몸짓”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전수관을 찾아온 젊은이들이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한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 상원사 목조삼세불상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고창군 상원사 목조 삼세불상(사진)이 최근 전북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도 유형문화재 제 210호로 지정된 삼세불상은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약사불로 안장된 신체비례 등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고창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9개와 도지정문화재 53개, 향토문화유산 7개 등 79점의 문화재가 등록돼 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세일글

“군민·공무원 힘 모아 일등고창 건설”

양태열 고창부군수

“살기 좋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양태열(53) 고창부군수는 “30여 년 동안 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700여 공무원들과 힘을 모아 일등 군으로 면모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조



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978년 9급 공채로 출발한 양 부군수는 전북도 기업지원과장과 재정과장, 법무담당관 등을 두루 거쳤다.

“장류·장수 고창 명성 드높이는데 전력”

이성수 순창부군수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수(51) 신임 순창군 부군수는 “장류와 장수 고창으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와 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5년 9급 공채로 출발해 남원시 문화관광과장, 전북도 기획관과 혁신분관담당관, 투자유치국 지역경제과장 등을 지냈다.

“고품질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

이평오 순창경찰서장

“안정된 치안확보와 친절한 경찰살상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평오(51) 순창경찰서장은 “고품질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지난 82년 경찰에 입문해 전북청 수사 2계장, 강력계장, 경비교통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소임순씨(51)와 1남1녀가 있다.

부동산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주]한마음 빤원 경매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부동산 매매 전문회사

수표

가계·기업·은행·현금

652-7544